



진실을 인양하라

함께 해주세요! 표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의 SNS 계정으로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절취하여 곳곳에 붙여주세요.

특별법에서 멈춘 ‘세월호 시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살려야

600만 명의 서명과 3만 명의 단식 끝에 작년 11월 19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국민의 힘에 굴복한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판단한 걸까. 새누리당은 일베의 세월호 참사 조롱글이나 퍼나르던 부적격 인사를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가하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 준비 과정을 대놓고 폄훼, 방해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또한 국민이 모은 성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나눠준다는 것이 핵심내용일 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더 애가 탄다. 사실상 인양 말고는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종자 수색 당시에는 인양을 말하던 정부가 막상 가족들이 인양을 요구하자 공론화를 핑계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돈문제를 핑계 삼아 인양불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세월호 인양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책도,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진상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재판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 풀리지 않는 의혹과 밝혀야 할 진실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

국민은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세월호와 그 안의 사람들이 바다에 완전히 잠기기까지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정부를. 그런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저절로 적극 나설 리 없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답은 하나.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처럼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는 확고하다.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세월호 인양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진실과 안전사회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아이들이 별이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1년이 되는 날 우리, 어른으로서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발행
416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wolho416
트위터 sewolho416

· 후원계좌
국민은행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특별조사위원회

아직 시작도 못함

세월호 선체 인양

아직도 검토 중

세월호 재판

책임 떠넘기기의 연속

피해자 배보상

그 어떤 배상과 보상도 받은 적 없음

‘7시간’의 진실

밝혀진 것 없음

대형참사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002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나
- 007 세월호 인양,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 010 [세월호 가족 인터뷰]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 씨
- 012 끝까지 여럿이 함께, 4.16국민연대
- 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밝혀야 할 진실
- 020 지금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의 권리를 말해야 할 때
- 022 [작가가 읽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나

해경이 왔다는 말에 잠시 위안을 가졌지만 곧 절망 속에 숨을 거두었을 희생자들.

그들이 느꼈었을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느껴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했던 국가는 어디에서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었고,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국가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실망스러운 정부, 절망스러운 여당

국가에 대한 이런 실망은 새누리당에 의해 더욱 커졌다.

새누리당은 여당, 즉 정부와 함께 국민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정부가 제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정부의 보호자 역할에만 충실하였다.

대표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아니 소극적이다 못해 방해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처음 받은 진상규명특별법안은 자료제출요청권한만 있는 매우 양상한 것이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자세는 계속 유지되었다. 될 수 있으면 무력한 법안으로 만들려고 조사권의 종류를 줄이고, 조사의 한계를 겹겹이 설정하며, 조사에 불응할 시 부과되는 불이익을 줄이려고만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장 안에서 고집피우는 것을 넘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등 이치에 맞지도 않는 각종 마타도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유포하기도 하였다.

진상조사엔 소극적, 정부비호엔 적극적

진상조사를 위해 진행되었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라 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죽음을 조류독감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가 담긴 카톡을 돌리기도 하였다. 심심하면 말꼬리를 잡아 국정조사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조사대상 기관인 해경청장과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결국 증인선정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 파행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청문회를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건설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 2월 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 정상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도 진상규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은 다시 반복되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의 과거 행적이나 철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일부 특별조사위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행한 발언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먼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의 경우, 지난 5월 3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도는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선박연령제한 완화, 각종 선박안전점검 및 운항점검의 민간이관, 부처개편에 따른 선박운항관계의 혼선, 재난대응메뉴얼의 부실 등 제도가 미비한 부분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이 중 선박의 안전과 운항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점검역할이 선박을 운항하는 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관됨으로써 사실상 점검이 무력해지는 결과를 낳은 부분은 ‘해피아’ 또는 ‘관피아’라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서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다음으로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는 작년 6월 방문진회의에서 MBC의 ‘전원구조 오보’나 희생자 가족

들에 대해 폄훼하는 리포트에 관하여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MBC를 적극 비호한 바 있다. 진상규명에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호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조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여 보인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하여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 기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원리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가족의 자력구제를 허용해 형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차기환 변호사가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몰이해는 차치하고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대하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이유(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상식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의 추천은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별조사위



항목
기초현황 조사연구
진상규명 실지조사

▲ 새누리당 측 조대환 부위원장이 제출한 특별조사위 예산안 수정안에는 진상규명 관련 사업 대부분에 0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뉴스타파)

원이 되기 전에 했던 발언 등이 바로 특별조사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특별조사위 방해 일삼고 가족 만나주지도 않아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서도 방해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 검토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와 예산안을 두고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이어 새누당이 추천한 황전원 특별조사위원은 같은 달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한다.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김 의원의 조사위 흠집내기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같은 달 21일 열린 특별조사위원 내정자 전체 간담

회에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맡을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 조대환 변호사가 설립준비단 해산 안건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결국 부결되었지만 조 변호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뒤인 22일 해양수산부에 연락해 “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철수시켜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무원들의 철수 등으로 2월 중 출범을 예정하고 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4월이 되어서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방해와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들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그를 업무로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방해하려는 것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더 성역 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사의 재발을 보다 완벽하게 방지하려면 근본적인 그래서 더 감추고 싶은 원인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툭아 보기

세부 사업	기존안	수정안
· 참사 기초자료 조사·연구	525	0
· 언론보도 공정성·적정성 실태조사·연구	430	0
· 인터넷 게시물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연구	430	0
· 번역, 편집, 종이책 제작 등	3,250	0
· 피해자·생존자 증언 채록·연구	7,963	0
· 관련 업무협의 및 업무추진	117	0
소계	12,720	0
· 동급 선박 현장조사, 현장방문, VTS 방문	93	93
· 현장조사 선박임차	425	425
· 세월호 항로추적 재구성 연구	700	0
· 전문가 자문	20	20
· 수중탐색, 동영상 촬영	1,563	1,563
· 3D 모형제작 전산개발	1,802	0
·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연구	5,422	0
· 신규 데이터 복구, 정밀분석	4,070	0
· 해외출장 여비, 통역비, 자료복사비, 자료료 등	1,704	0
· 관련 업무협의 및 업무추진	189	60
소계	15,990	2,160

또 다른 특별법, ‘배·보상 특별법’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예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배·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마치 가족들이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유언비어가 돌았지만 아직 국민성금이란 정부의 보상금이란 가족들에게 전달된 바 없다.

지난 12월 12일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 법의 공식명칭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는 앞으로 배·보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기구를 만드는 문제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성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냐는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배·보상 문제 또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들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보상금 논란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배·보상은 ‘책임’이다. 단지 ‘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 안전위해 쓰여야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참사여야 한다. 누구도 앞으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이런 곳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도둑이다. 같은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권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의 그 모든 태도가 바로 세금도둑이다.

새누리당이 공당이자 여당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도 합의했던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운영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세금으로 받아 왔던 운영비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으려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세월호 가족들이 도보행진을 했다. 안산 분향소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530km에 달하는 거리를 19박 20일간의 일정으로 걸었다. 실종자의 수습과 침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이어진 기다림이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가혹한 현실이다.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 200일을 앞두고 황지현 학생이 돌아왔다. 자신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었다. 정부가 수색 종료를 압박하며 가족에게 포기를 종용하던 그때, 시신이 수습된 것을 국민들은 우연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기적만은 아니었다. 참사 이후의 수색 작업이 불충분했던 탓이다. 수차례 들어가 시신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구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할라치면 늘 부족함이 드러났다. 실종자 가족들이 내몰리듯 수중수색 종료를 받아들인 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인양을 추진해야 뗏조각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을 외면하는 정부

그러나 정부는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다.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는 등의 인양 포기론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기술검토 TF(태스크포스)’는 인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양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마음은 분명하다.

〈한국갤럽〉이 2월 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남은 실종자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61%가 공감했다. 성, 연령, 지역 등의 응답자 특성에 상관 없이 선체 인양 의견이 우세했다. 세월호의 선체 인양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는 것은 사람의 가장 본원

적인 마음에 기대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입장이 양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비용 운운하며 반대한 영향일 것이다.

최근 TF는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3월 중순 국민안전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1만 톤급 및 8천 톤급 해양 크레인 2대를 동원해 선체 절단 없이 통째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며 “비용은 천억 원 안팎, 작업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국제적으로도 침몰 선박의 선체는 인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7천톤급인 세월호에 비해 16배나 더 무거운 11만4,147톤의 콩코드디아호는 이탈리아 정부의 의지를 통해 2년 만에 걸쳐 인양됐다. 콩코드디아호와 함께 마지막 실종자였던 인도인 웨이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신뢰와 희망의 기초다.

세월호 인양, 열쇠는 어디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인양,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다시 비용 문제를 들며 반대할 수도 있다. 만약 돈 때문에 기다림과 진실을 포기해야 한다면, 한국사회는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훼손 없는 온전한 선체 인양을 바라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마음과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팽목항을 잊지 말자.

함께 불러주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2학년 1반 조은화 양의 책상에는 누군가가 ‘너 진짜 계속 결석할 거니? 제발 은화야’ 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조은화 님은 “배가 45도 기울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한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허다운 님은 수학여행 가기 몇일 전 활짝 웃으며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4월 16일 가족사진은 도착했는데 허다운 님은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남현철 님은 ‘사랑하는 그대여’의 노랫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팽목항에는 남현철 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타가 바람에 노래를 부릅니다.

박영인 님은 4월 17일 시신이 수습됐다고 알려졌으나 이후에 다른 학생의 시신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뒤통박질을 잘했다던 박영인 님은 아직까지 물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뒷산에 사과나무를 심던 사람이었던 양승진 님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먹으라고 돈을 쥐어주며 웃던 모습을
CCTV 영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석 님은 고슴도치 머리라 “또치 쌤”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수영을 아주 잘 하는 체육교사였던 고창석 님은 아직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살짜리 여동생에게,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건네주었던 권혁규 님을 기억하시나요?
여섯 살 남자아이였던 권혁규 님은 아직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규 님의 어머니 **한윤지** 님은 4월 23일 죽은 몸으로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권재근** 님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은 무등을 태워주기로 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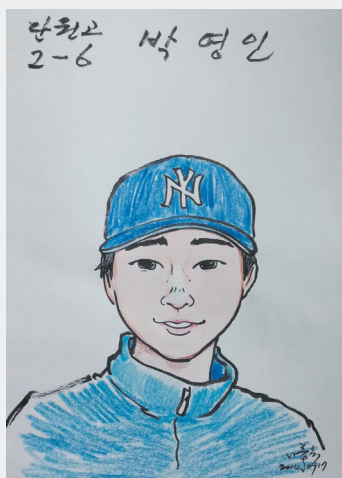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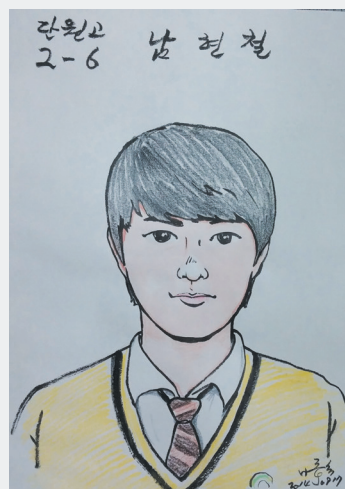
이영숙 님은 일을 하느라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살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살려고, 집을 얻어 짐을 옮기던 중이었는데, 아들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월호 인양에 힘을 모아주세요

인양 촉구 범국민 청원

<http://petition.sewolho416.org>





“진실 알리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

지난 1월 2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단법인 출범을 공포하고 세월호 인양 촉구를 위한 안산-팽목항 도보행진에 나섰다. 가족들이 만든 사단법인의 공식 명칭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약칭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생각,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 2학년 7반 찬호 아빠 전명선 님(4.16가족협의회 대표이사)을 만났다.

가족들이 모여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다. 언론매체, 특히 정부에서는 생존자 학생들과 선생님, 희생자와 실종자, 단원고와 일반인,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탑승했던 피해자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할 계획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4.16가족협의회를 만든 첫 번째 이유다.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끝까지 수습해주겠다, 가족들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이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의혹과 진실이 세월호에 담겨 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들도 세월호에 있다. 피해자 가족 전체가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에 모든 힘을 기울이자고 약속했다. 우리가 뭉친 두 번째 이유다.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1월부터 활발한 진상규명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그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든 피해자 가족들 전체의 목소리로 비판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으로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의 생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안전체험관, 추모공원, 기록관 사업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할 계획이다.

참사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1주기를 보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1주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잡았지만 상징적인 행사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다.

안산에서 천인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아직도 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담은 팩트북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도 계속 이어가고,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해외를 포함해 어디든지 찾아갈 계획이다.

지난해 4월 16일이 안전의 날로 제정되었다. 날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반활동, 재발방지 대책 등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외려 정부 쪽에다 이러저런 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이 날의 의미에 맞게 진실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



© 416 가족협의회 · 김민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만인 서명운동할 때, 활동 경험이 없는 엄마들이 처음엔 길거리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그때 함께해준 국민이 있었기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했다.

부모들이 본인 몸을 사리지 않고 국회, 광화문, 청운동 농성 그리고 삼보일배까지 했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지금도 광화문을 지키고 팽목항에 분향소를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건 국민이 함께해주었기에 가능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항상 함께 행동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부모로써 피해자 가족으로써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싸운 것은 잘 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도 우리 곁에 지금까지 계시지 않나 싶다.

아쉬운 점은 좀 더 싸웠어야 했다. 우리가 단식을 했었잖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단식까지 했음에도 사실상 여야의 협상과정을, 혹은 대통령과 총리를 너무 믿었다. 6.4선거, 7.30선거, 교황 시복식까지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다. 국가를 위한다면서 우리를 회유했을 때 목소리를 내고 더 힘을 내서 싸웠어야 했는데 국가를 너무 믿고 있지 않았었나 싶다. 싸워야

할 때 더 많이 싸웠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다.

한마디만 더. 화가 난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하는데, 출범을 못하고 있다. 출범소식이 들려와야 될 때 오히려 세금도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지방 공무원들 복귀시키고 하는 작태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은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설을 맞으며 함께 싸워온 많은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세월호 가족들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 이러는 걸 원하진 않는다. 우리는 가족을 잃었지만 귀향이라는 것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이지 않나.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설날만큼은 조금 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행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욕심이라면 욕심이다.

아파할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못 나누는 기쁨까지 나누기를 바란다. 가족애가 쌓이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여럿이 함께, 4·16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4.16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삶의 곳곳에서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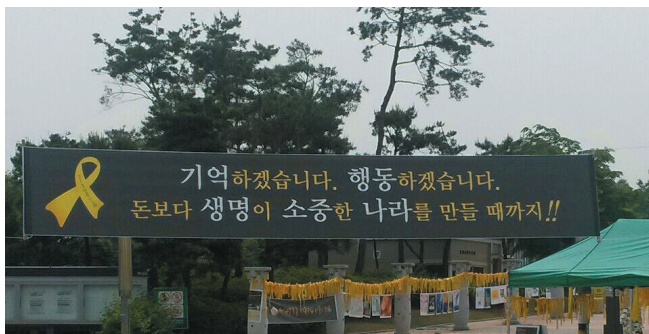
‘안산동행0416’ 시민 30여명은 매주 첫째주 목요일에는 담소의 날을 갖고 매월 16일에는 안산 수암봉, 중앙역과 상록수역에서 실천한다. 담소의 날에 모여서 416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된 내용을 매월 16일에 실천 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봉지역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도봉 약속지킴이’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16일이 있는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창동역과 도봉산 입구에 모여 시민들에게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서명운동을 한다. 아직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소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늘려 보려고 한다.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의 밴드회원들도 분향소 지킴이를 시작으로 촛불추모회, 서명운동, 주민행진의 날과 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수원 칠보산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도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들뜬 촛불을 실내로 옮겨,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마을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춘천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학교교수 네트워크’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일인시위를 했다. 1주년 추모 토론회, 문화제를 지역모임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는 사람들

부산지역 청년모임과 대학생 모임이 중심이 된 부산4.16약

속지킴이 제안단도 4월 16일 1주기 추모대회까지 지역 내에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약속지킴이 산타도 해봤고, 모집된 416지킴이들에게 자체 제작한 소식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릉시민행동 청년위원회 ‘청년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40리 청년도보행진, 동네 프리마켓에서 ‘세월호 희망나무’ 만들기, 청년산행, 벽화그리기 등을 해 왔다. 무엇보다 지역 ‘청년’들이 관심 갖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의 온도를 높이고 싶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세월호 진실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3년 건기’를 하는 시민모임도 있다. 노란리본과 세월호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걷는다. 부천에는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노란테이블’으로 모이고 있다. 감정 나누기, 변화 필요성 공감하기, 다른 사회 상상하기, 실천 약속하기 등의 단계로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사회에 대해 청소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행사다. 광화문광장 약속지킴이도 꾸준히 문화제와 강연회를 이어가고 있다.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북콘서트도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싹틔울처럼 이어져 있다. 이들의 움직임이 든든한 동맥으로 쿵쿵쿵쿵 전국을 순환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416을 잊지 않는 사람들, 아니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약속과 행동은 지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 내 삶을 바꾸는’ 이미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대행동 서명지기

“5월 어느 날부터 페이스북에 지하철 노선도 그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세대행동’이었습니다. 서명하고 인사하는 잠깐의 시간에 세월호는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아홉 명의 별이 지키는 세월호의 진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럿이 함께, 4·16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4·16국민연대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http://cafe.daum.net/momyh>)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들이 울고만 있다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4년 4월 26일 다음 카페를 만들었다. 엄마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국민과 함께 손잡고 행동하자’는 단체다.

내 새끼가 예쁜 것처럼 남의 새끼도 예쁜 것이 아이 키우는 엄마의 본능적인 마음이다.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지금,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끝까지 밝혀줄게! 반드시 밝혀줄게!”



리본공작소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 세워졌을 때, 작은 파라솔 아래 노란 리본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 참사를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미안한 마음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새기며 매일매일 리본을 만들어 나눈다.

리본 만들 재료를 자르고 붙이고 줄을 끼우는 사람들은 사는 곳, 하는 일, 나이, 취향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진실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만으로 하나가 된다.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참새방앗간 같은 쉼터다.

바꿈세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학부모 15명이 모여 시작한 양평 바꿈세는 현재 45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4.16 이후 세월호 가족의 애통함을 피부로 절감하며 많이 바뀌었다. 고통과 분

노의 공감으로 시작된 활동은 오히려 지쳐 있던 삶을 깨어나게 했다.

면 단위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원활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어려운 길 앞장서 가시는 유가족 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돈보다 권력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외칠 것이다.

마포 세월공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며 시작된 세월호 마포지역 주민모임은 지역의 17개 단체들과 연계해 지금까지 망원역 주중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 현수막 걸기, 강연회, 100일 릴레이단식, 도시락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새 겨울이고 아마도 우리는 거리에서 새봄과 1주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암담하지 않다. 보이는 만큼 가고, 가다 보면 새 길이 보일 것이다. 그 길에 햇불을 든 가족들이 있고 함께 가는 벗들이 있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리멤버 0416

* 페이스북:리멤버0416,

* 다음카페:cafe.daum.net/remem0416



2014년 4월 28일, 함께 우는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에 나간 한 사람이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하루 네 시간씩 피켓을 들고 서있던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다. 페이스북과 다음카페를 통해 서로 격려하면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부모의 절규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응답이 없다. 그 앞에 말없이 작은 피켓 하나를 들고 서있는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작다. 그러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전국 어디서든 1인 시위를 하려는 분께 피켓을 무료로 보내드린다.

끝까지 여럿이 함께, 4·16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움직임, 하나로 모아가자”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Q. 작년 11월 7일 특별법 제정 후 국민의 관심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특별법은 가족과 국민이 만들었다. 온 힘을 쏟아 부은 가족과 국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백만 명에 이르는 서명, 3만 명에 이르는 동조 단식, 그리고 수많은 행동들은 감동과 헌신 그 자체였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 잊지 않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물어오는 시민들이 많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지만 가족과 국민의 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Q. 특별법 제정 이후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가족이 찾아가는 국민간담회가 5백여 회에 이르고 모두 3만여 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다. 올해에도 가족과 국민들은 실종자의 완전한 수습, 세월의 온전한 인양,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기억과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양 촉구 서명에 5만 명 가까이 참여했고 가족들의 도보행진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국민들의 동조행진이 불어나고 있다. 지역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120여 개의 시군구에서 멈추지 않는 풀뿌리 움직임들이 있다. 6천여 명의 4.16약속지킴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16 소식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교류하고 싶어 한다.

Q. 다양한 움직임들이 서로 북돋으며 힘 있게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가 있다.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잊지 않고 행동하려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모두가 중심이 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같이 뻗어나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작년 한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벌였던 단체나 커뮤니티들과 4.16가족협의회가 함께 ‘4.16 국민연대’ 구성을 위한 논의 중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등 우리 스스로 대안이 되어가는 통합적 4.16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Q.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도 1년 6개월이다. 적어도 2년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떠올려보자.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제대로 해내려면 기한이 없어야 한다. 인양도 돈 문제로, 특별조사위원회도 돈 문제로 어깃장을 놓는 정부를 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돈보다 생명, 돈보다 사람인 세상이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 변한 것이 있다. 누군가의 고통에 이토록 깊게 공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결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16 국민연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4.16국민연대 준비 현황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시군구 풀뿌리 세월호 모임, 리멤버0416, 엄마의노란손수건, 리본공작소를 비롯한 커뮤니티 풀뿌리모임, 생협, 종교계, 법조계, 학술허,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대표들과 함께 그동안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국민연대를 의논해 왔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중점 과제를 비롯하여 다가오는 4.16 1주기 범국민추모기간 준비에 대한 의논도 조속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통합적 4.16국민연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2월16일 오후2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칭)4.16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4일에는 오후7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칭)4.16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밝혀야 할 진실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두 명이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를 자행했다. 테러범의 총격으로 11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테러는 프랑스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사건이 일어난 오전 11시 30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러가 발생했음을 보고 받았고 2분 후 〈샤를리 에브도〉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바로 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다음날을 국가애도의 날로 정한다.”고 공포한다. 그리고 2시간여 만에 내각 전체를 불러 회의를 열고 테러 진압 계획을 세웠고 이후 실시간으로 사태의 추이를 보고 받았다.

올랑드의 ‘2분’과 박근혜의 ‘7시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승객 대부분은 학생이었고 아직 다 피지도 못한 꽃 같은 우리의 아이들과 승객들이 국민 대다수가 보는 가운데 침몰했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가 있던 날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다. 오전 10시 서면으로 사고 보고를 받고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7시간 만에 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니까?”라고 국민 모두를 당황케 하는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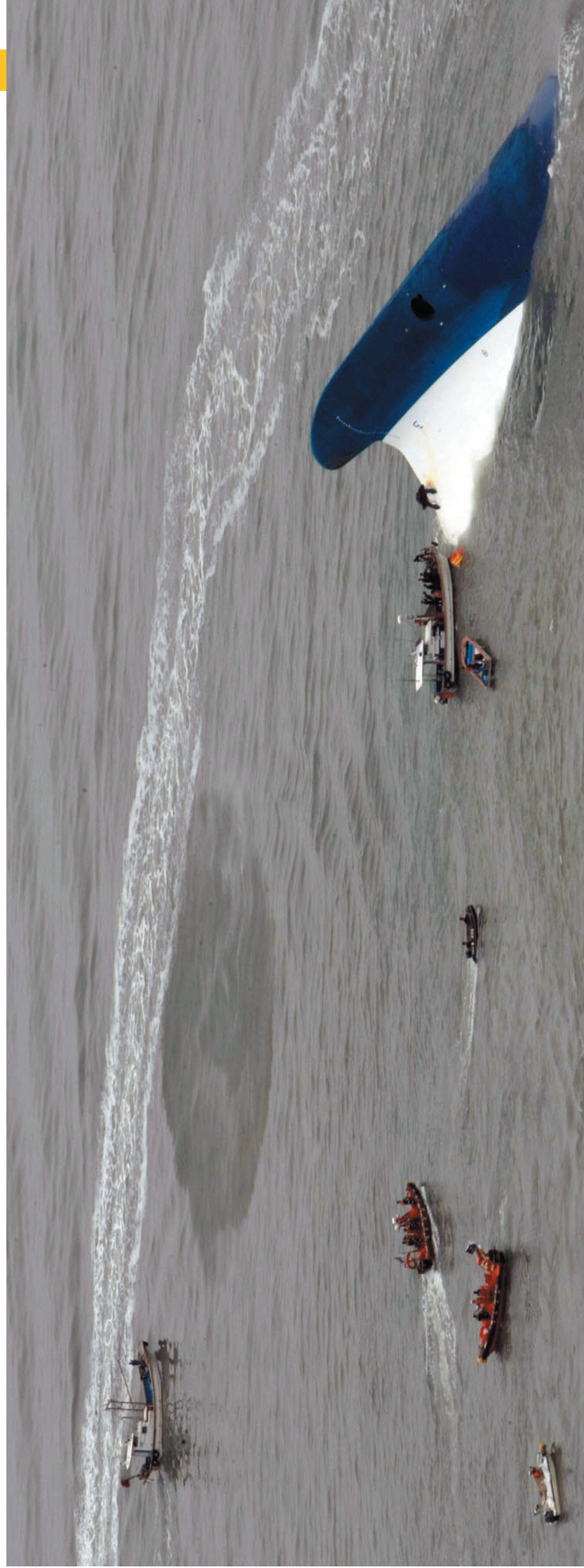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의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운희씨를 만났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고, 청와대의 고소로 지난 해 11월 27일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계 일보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단독 보도한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시작은 2013년 12월이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운희 비선국정개입’ 논란의 시작점은 세월호 사건 당일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 정운희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한 학자(역술인)를 만났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운희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 발표 이후 동아일보는 정운희씨와 한학자(역술인)가 만난 곳은 평창동에 있는 역술인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 집에서 청와대까지는 4.1km다. 자동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이다. 평창동에서 역술인을 만났다는 것이 박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의 반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운희씨 행적 관련 검찰조사가 부실했고, 서둘러 어떤 결론을 내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또 있다. 검찰이 정씨 핸드폰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위치추적만 하면 참사 당일 정씨의 이동경로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왜 하지 않았을까. 검찰이 시국사건 조사 시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집회 참석 여부 등을 증빙했었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 의혹이 커진다.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다.

‘양우공제회’로 더 커지는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유독 세월호만 사고 시 국정원에 직접 보고 하도록 한 점, 두 번째, 국정원이 선박의 재판기 위치, 직원휴가, 화장실 휴지 배치 등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한 점, 그리고 세 번째,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이고 국정원 직원들이 회원인 국정원 외곽단체 [양우공제회]라의 선박투자 경력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양우공제회 관련 기사는 지난해 월간중앙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실제 과거부터 정보당국은 선박을 운영해 왔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이용한 선박인 “용금호”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이 역시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다.



지금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의 권리를 말해야 할 때

○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해주실 분들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416 가족협의회 · 고대로



사고가 참사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사고는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기업의 이윤을 중심에 두고 정치가 그런 논리를 부추기면 그 사고는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선박연령기준을 완화시키고, 안전관리를 외주업체에게 맡기도록 법을 만들고, 기업들은 수명 지난 배를 들여와 불법 개조하고, 안전관리업체와 짜고 안전관리를 무시한다. 정부는 구조장비도 갖추지 않고, 구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씨랜드 화재 참사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에서, 그렇게 죄 없는 이들만 희생되었고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잇으라’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이런 구조를 유지하려는 이들이다.

적어도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는 정치인들과 기업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를 ‘잇으라’고만 말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안전’을 말하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규제는 해체하고, 심지어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발전대책’으로서 민간손해보험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며, 안전펀드를 조성해서 원격의료 등 민간업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안전하려면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권리의 선언

세상을 바꾸려면 정부와 기업에 기대지 말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은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 권리를 선언하고, 제도와 법을 바꾸고, 기업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여러 시민들과 함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

사람의 생명은 정책과 사회운영에서 제일 앞선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권리의 주체이다. 정부는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시민들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구조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험에 대해 알권리, 참여할 권리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

기업의 이윤과 정치적 권력 유지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 우리 주변의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알 권리를 위해 모이는 시민들이 있다.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 지자체나 대중교통 기관에 시민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은 시민들이 나설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들이다.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은 바로 이런 시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아서 제정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세계 여러 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었듯이,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이 인권선언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과 관행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에 ‘인권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지역과 각 모임의 토론을 거쳐서 인권선언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존중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인권선언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다시, 봄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참여했던 유가족과 작가들의 간담회가 있었던 날.

다영이 어머니는 이 책의 표지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책을 열어봤다 수건으로 덮어뒀다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읽을 수가 없어요.**” 건우 어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해 주려고 천천히 책을 읽었다고 했다. “**그게 아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증언은 읽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을 냈다. “**건우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창현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더 열심히 찾아서 보았다고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유가족의 피와 눈물 그 자체인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누군가는 쳐다보기만 해도 그것이 상처를 할퀴는 듯해서 눈길조차 줄 수가 없고, 누군가는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한 자 한 자 몸에 새기듯 읽는다.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온 준우 어머니를 준우 동생 태준이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듯, 아들은 이불을 활짝 들춰 보이며 말했다. “엄마, 선물.” 그 속에 살포시 넣어있었다던 이 책은 형을 그리워하는 태준이의 마음처럼 따뜻하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피와 눈물이 그러하듯이.

유가족들은 때론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고, 때론 피를 토하듯 가슴 속에 응어리진 울분을 쏟아내며 통곡했다. 그 이야기들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한 마디의 은유나 상징도 없이 곧바로 팽목항으로, 진도체육관으로, 땡골수도 한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간다. 사고 당일 생존자 명단에 손가락을 대고 아이의 이름을 찾다가 오염하는 가족들 곁에, 아이에

게 입히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옷가방을 잃어버린 후 애써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 곁에, 손톱이 다 헤진 채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서 숨도 못 쉬고 통곡하는 어머니 곁에 우리를 세워 놓는다. 눈앞에 세월호가 모로 누워 버려져 있는데 선장은 도망가고 해경은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더는 견딜 수 없는 훼손된 시신들이 끝도 없이 올라온다.

책장을 열린 덮어버린다. 아,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이 덮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 내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살아있고, 나에게는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것이. 안도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런 마음을 안다는 듯 세희 아버지가 말했다. “특별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석 어머니는 유족들을 막는 경찰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 “이럴 시간에 당신의 가족에게 가

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 책은 사랑을 잃고 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수현 어머니는 평소 아들에게 했던 약속, ‘나는 너를 대신 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지킬 수 없었던 그날의 상황이 미안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렸다. 건우 어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아침 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엄마는 아들을 꼭 안고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금방 끝날 거야...”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잔인했던 4월 16일 아침 8시 50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수많은 외침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는 맹골 수도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항로를 바꾸는 방법, 그것은 지난 봄 우리의 항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희생자들의 피와 살점으로 얼룩진 그 바다 위를 지날 때 유가족들의 눈물로 그려진 이 책이 지도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수확여행은 언제까지야?"

"금요일까지야 엄마."

"그래,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 대구_2월 9일(월) 저녁 7시, 아트팩토리 청춘
- 성남_2월 27일(금) 저녁 7시, 태평동락커뮤니티 주민교회
- 광주_2월 28일(토) 오전 10시 반, 5.18기념센터 대동홀
- 옥천_3월 3일(화) 저녁 7시, 옥천성당
- 창원_3월 5일(목) 저녁, 시간 장소 미정
- 춘천_3월 12일(목) 저녁 7시, 강원대학교 강당
- 고양파주_3월 14일(토) 오후 3시,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
- 전주_3월 14일(토), 시간 장소 미정
- 강릉_3월 14일(토), 시간 장소 미정
- 부산_3월 16일(월) 저녁 7시 반, 장소 미정
- 순천_3월 17일(화) 저녁 7시, 순천 연향시립도서관 지하극장 '연'
- 거제_3월 18일(수), 시간 장소 미정
- 천안_3월 20일(금), 오후 3시, 저녁 7시, 공간사이
- 제주_3월 27일(금) 저녁 7시, 장소 미정
- 양평_3월 28일(토), 시간 장소 미정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뒤에 남은 우리들이 눈물을 닦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20140416 416



김두식 저는 계속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한 결정이었 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2시간

이시영 이 '참사 아닌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Da Chu 이 책은 남겨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며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이재의 이 고통과 분노와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한 순간 의 감정이 아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록이자 역사다.

김혜민 하나하나 따뜻한 삶이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 을 법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우정 이것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자, 거짓에 관한 기 록이다.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이고, 듣지 않으려 했 던 아우성이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건이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2시간

lee hanna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2시간

정소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깨질 수 있다면 좋겠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함께 읽고 공유해주세요.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창비 페이스북/트위터 공유하기 facebook.com/changbi · twitter.com/changbi_books

※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기부됩니다.

창비 Changbi Publishers



봄, 다시 봄. 4월 16일이 돌아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봄 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잊지않겠다는 약속, 기억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밝혀주겠다는 약속
저마다의 가슴에 담고 광장에 모여주십시오.

진실의 봄을 열어주십시오.

○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sewolho416.org)를 참조하세요.

